

#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 考察\*

부 영 근\*\*

## 차례

1. 머리말
2. 民風反影의 寫實主義 文學
3. 耽羅錄의 世界
  - 1) 風流意識의 具顯
  - 2) 官僚意識의 透映
  - 3) 愛民意識의 發露
4. 맺음말

## 1. 머리말

石北은 弱冠時부터 “文名動一國(문학적 명성이 한 나라를 풍동시킨다.)”이라 할 만큼 일세를 풍미했던 大詩人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남인 출신으로 西人이 장악하고 있는 치하에서 출사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50세까지 고향인 韓山에서 가난한 선비생활을 보내던 중 英祖의 탕평책의 일환인 蔭補로 영능참봉에 제수되고 52세 때에는 金吾郎의 명을 받고 耽羅에 들어가게 되었다. 石北은 耽羅에서 45일 동안 머무르며 100

\* 이 논문은 2003년 12월 동아인문학회 한·중·일·대만 국제 학술발표대회 중국 화남사범대학 현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과제연구소 주자대전 번역 팀 선임연구원.

여 수의 시를 지어 「耽羅錄」이라 명명하였는데 200년 전 耽羅에 전해지던 신화 전설과 언어 풍속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耽羅는 신화 전설과 풍속이 내륙과 매우 다른 고장이었다. 石北은 이에 대해서 풍속지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다양한 기록들을 남겼다. 또 그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관서에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여 관리들의 세상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石北은 가난한 선비로 50세까지 향리에서 보냈고 출사 이후에는 지방관을 전전하던 미미한 南人으로 조금 더 밀착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백성의 고충과 관리들의 가혹한 처사를 자세히 체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18세기 후반기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하였다.

현재까지의 석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이가원의 「石北文學研究」<sup>1)</sup>에서 출발한 연구가 한국문학사에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이경수의 「石北詩 研究」<sup>2)</sup> 등 여러 편의 논문<sup>3)</sup>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민의 「石北 申光洙의 生涯와 詩」<sup>4)</sup>라는 연구를 통해 핵심이 드러났다. 그러던 중 석북의 개별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해 오던 이기현에 의해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sup>5)</sup>라는 단행본의 출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석북 문학연구의 몸통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 그에 대한 개별연구가 악부작품에 편중되어 일정한 방향성이 표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그의 문학성, 특히 시재가 완전히 녹아 있는 그가 金吾郎의 명을 받고 탐라에 들어가서 풍우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에서 무료함을 덜기 위해 지었다는 「耽羅錄」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분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전체를 응축시켰던 그

1) 이가원, 「石北文學 研究」, 《동방학지》, 1958.

2) 이경수, 「石北詩 研究」, 국문학연구회, 1978.

3) 이기현, 「石北 申光洙의 ‘金馬別歌’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17집, 1994.

4) 정 민, 「石北 申光洙의 生涯와 詩」, 「石北 申光洙 詩選」, 평민사, 1993.

5)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서, 1996.

의 역작 「耽羅錄」의 모습이 다소나마 밝혀지고 이에 따라 그의 문학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하여 18세기 탐라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어 탐라라는 지역적 한계 속에 면면히 이어졌던 여러 문인들의 기록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한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

우선 先行的 연구로 그의 사실 지향적 민풍반영의 문학의식을 밝혀 적극적인 작가의 시대정신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논의로 그의 風流意識, 官僚意識, 愛民意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하려 한다.

## 2. 民風反影의 寫實主義 文學

어떠한 문인의 문학작품이건 작가 개인의 평생의 경험적 소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모두 작가가 처한 환경의 범위 속에서 잉태된 응축물이기 때문이다.

석북은 평생을 다채로운 문학적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남인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살다가 인생 말기에 탕평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위기 속에 벼슬살이를 하게 된다. 「耽羅錄」 역시 그가 금오랑으로 제주에 갔다가 風雨로 뱃길이 45일 동안 막혀 제주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창작된 역작이다. 따라서 「耽羅錄」 속에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과거 속에서 체득된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고통 받고 있는 제주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하였다.

우선 그는 이국적 물색을 노래하였다.

久我南中客  
頗於土俗詳  
方音多細急

오래된 남도의 나그네  
토속을 자세히 알게 되었네.  
방언은 가늘고 급한 것이 많고

夷姓半高良	성씨는 고씨 양씨 태반이네
只見蜂房石	돌 위의 벌집은 보았지만
虛聞馬尾裳	말총치마 들어보지 못했네.
北人如問事	북쪽사람들이 지방의 일들 물어보면
歸作話頭長	들려줄 얘기 많기도 하구나 <sup>6)</sup>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이국적 풍물에 대하여 생소한 북쪽지방 사람이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 이 지방만의 특색을 시화하였다. 즉 방언, 성씨의 분포, 풍토, 산물 등에 대하여 특이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석복의 자세는 사물에 대한 배타심을 버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이국적 물색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려는 것이었다. 석복은 이러한 인식의 토대 속에 당시 사회의 모순된 모습을 문학에 담으려 하였다.

白頭蠻家女	새하얀 머릿결 섬 속 여자들
焦髮蠻家兒	푸석한 머리카락 섬의 사내들
累累爲羣十數人	웅기종기 떼를 지은 수십 명이
皆着牛鞞黃狗皮	모두 거의 털이 빠진 개가죽 입고 있네.
一身枯黑皮粘骨	검게 그을린 바짝 마른 몸 가죽이 뼈에 붙었고
飢不成音細如絲	주려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늘기 실과 같구나.
口稱使道活人生	입으로 고을 사또에게 살려 달라 애걸하며
乞飯公庭日三時	관아에서 날마다 세 때 구걸 한다네
赤棍牌頭噴如雷	곤장든 청지기 벼락같이 소리치며
曳出門外鳴聲悲	문밖으로 끌어내니 애달피 우는구나.
<中略>	
況復風雨北船阻	게다가 풍우가 북쪽에서 오는 미곡선길 막아
米貴絕無如今春	쌀값이 올봄 같은 시절이 있었으랴
近聞髮帽涼臺不論直	근자에 들으니 탕건과 양태 가치 없어
富者但用小米三升得	부자들 쌀 석 되면 살수 있다하네

6) 신광수, 『石北集』 권7, 「上風」.

此邦富者能幾何	이 지방 부자들 몇 명이라
又失今農亦溝塹	또다시 올 농사 그르치면 모두 죽은 목숨이네
耽羅乞兒聞我言	탐라의 거지들 내말 듣고
一時掩面啼向北	일시에 얼굴 가리고 북쪽 향해 울먹이며
北方雖遠父母邇	임금님 비록 멀리 계시지만 부모처럼 가깝게 느끼니
萬里明見耽羅國	만리 변방 탐라국 부디 밝게 굽어 살피옵소서 <sup>7)</sup>

조선후기 文學史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악부시가 풍부하게 지어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 樂府詩 또한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 조선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것이 많고, 당대의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는 것이 많다.<sup>8)</sup> 「濟州乞者歌」는 조선후기 시사적 변화의 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飢寒이 완전한 섬나라 백성들의 전신이 바짝 말라 검게 그을렸고, 기맥이 소진해 버린 목소리는 실오라기처럼 가늘면서 “사람을 살려다오.” 라는 구호를 부르짖었다. 또 그들은 관아에 三時로 들어와서 호소하였으나, 악착같은 당시의 관리들은 아랑곳 하지 않을뿐더러 민정을 暗察하는 직책을 지닌 소위 暗行御史들도 정당한 보고가 없었고, 관아의 牌頭들이 도리어 赤棍으로 그들을 구타하는 사실을 목격한 石北은 국가의 政化가 이에 미치지 못함을 慨嘆하고는 자기가 먹던 片肉과 餘飯을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그의 비분강개함은 다음 작품에서 더욱더 구체화된다.

耽羅女兒能善泅	탐라의 여자애들 수영에 능하여
十歲已學前溪游	열 살에 이미 시내에서 헤엄치기 배운다네.
土俗婚姻重潛女	지방의 혼인풍속 해녀를 중히 여겨
父母誇無衣食憂	부모들 의식 시름 덜었다 자랑들 한다네.
我是北人聞不信	북쪽에 사는 우리네들 믿을 수 없었더니

7) 신광수, 「石北集」 권7, 「濟州乞者歌」.

8) 이기현, 「石北 申光洙의 「金馬別歌」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7집, 한국한문학회, 1994.

奉使今來南海遊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鍬一笊一匏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中略>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嚼案已推  
潛女潛女爾雖樂吾自哀  
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  
嗟吾苦生海州青魚亦難喫  
但得朝夕一鼈足

사신으로 남도에 와서 보니  
성 동쪽 이월이라 바람이 거세거늘  
집집마다 아녀자들 물가로 나와  
갈쿠리 종다래끼 뒤웅박 하나로  
검붉은 몸뚱이 빠지 하나에 의지한들 무엇이 부끄러우랴  
곧바로 거침없이 깊은 물속마다하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물속으로 뛰어든다네.

금과 옥으로 치장한 관리들의 부엌  
비단옷 입은 귀공자들의 술자리에서  
어찌 고생의 소종래 알기 기대하라  
겨우 한입 씹다가 상을 물리리라  
잠녀야! 잠녀야! 너희들 비록 즐겁다지만 내 슬프니  
어찌 사람 목숨 희롱하여 내 배 채우랴  
아! 우리네들 해주 청어도 먹기 어려워  
아침저녁 부추나물 만으로도 만족한다네.9)

「潛女歌」는 제주도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광경을 묘사한 7언 고시이다. 다분히 낭만적인 정취를 자아낼 수 있는 이국적 풍물이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는 광경에 감탄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러한 생산물이 육지의 양반들에 의해 수탈됨을 批判한 작품이다<sup>10)</sup> 李家源은 「潛女歌」에 대하여 “이에는 潛女の 전면적인 생활 실태를 곡진하게 묘사하되 그들을 貪利輕死의 가없는 苦海에서 구출치 못함은 오로지 저 金玉庖와 綺羅席의 일부 귀족계층의 갖은 淫逸과 착취로 이 불균형의 사회를 조성하였으며, 이에 기인한 모든 비극은 쉽게 한 개의 서생인 石北으로서서는 만회하기 어려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음은 아니겠지만, 그의 충군 애국적인 불타는 사상을 갑자기 억제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다”하였다.<sup>11)</sup> 이 당시 잠녀들의 고통에 대하여 번암 채제공

9) 신광수, 『石北集』 권7, 「潛女歌」.

10) 이경수, 「石北詩 研究」, 국문학연구회, 1978.

11) 이가원, 「石北文學 研究」, 《동방학지》, 1958

은 만덕전에서 “더구나 耽羅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당시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한다.”<sup>12)</sup>며 당시 제주여인들의 구속된 삶을 꼬집었다. 실제로 제주도는 땅이 박한데다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잠녀들의 바다 일이 섬사람들의 의식을 해결하는 생계의 방편이었다. 잠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는 장면은 한편 생동감이 있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풍토성과 활기찬 노동현상은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갈고리, 종다래끼, 뒤옹박 등의 작업도구를 하나씩 들고 벌거벗은 몸에 조그만 잠방이 하나만을 걸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잠녀의 모습을 석복은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잠녀의 모습은 北軒 金春澤의 「潛女說」<sup>13)</sup>을 연상케 하는데 「潛女歌」는 이 작품과 함께 잠녀의 작업 과정에 대한 光景을 그린 대표적 작품이다. 잠녀의 바다 일에 대한 감탄은 곧 연민의 정으로 表出된다. 감탄이 연민의 정으로 바뀌는 순간, 육지와 대조적으로 생명까지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하는 잠녀의 신고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때로는 이무기의 밥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바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잠녀의 삶이다. 운명적인 바다 일보다 더 사나운 인간들이 그들의 勞動力을 빼앗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벌벌충이다.

해녀의 목숨을 건 해산물의 내력을 모르는 벼슬아치의 주방 장면을 통해 잠녀의 비극적 상황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대조적 현실을 통해서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을 폭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고관대작의 파렴치한 삶을 비판했다.

이상의 논의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안병학은 「최경창의 시세계와 삶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sup>14)</sup>에서 「최경창의 현실인식에 숨어 있는 정치적 상황에 의한 偏向的 요소는 자신과 동료들의 불우함에 의지하여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연역해내지만, 그것이 당대 현실의 혼

12) 채제공, 『樊巖集』 권55, 「萬德傳」,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13) 김춘택, 『北軒集』 권13, 「潛女說」.

14) 안병학, 「최경창의 시 세계와 삶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 원광한문학 제6집, 2002.

탁한 측면의 묘사와도 일치한다는 것은 그 같은 불우함과 그에 따른 偏向的 視覺이 오히려 현실을 보다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대는 다르지만 석복 역시 몰락한 남인의 시각으로 오히려 반대급부의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제주의 피폐한 현실을 사실적 민풍반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樂府가 없다.”<sup>15)</sup>는 극단적 언급을 하면서까지 악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진 진정한 樂府를 창작하려 했던<sup>16)</sup> 그가 樂府體의 특성을 살려 자세히 드러내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대희가 “三淵이 일상의 평범한 사실을 平澹하게 그린 시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주어진 생활의 단면을 평담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그 심층에는 시인의 철학적 내면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곧 인식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사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려 하였다고 말하면서 三淵이 제기한 변화는 詩史的으로 볼 때 혁명이었다. 그것은 낭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며 중세의 보편주의에서 근대적인 개별주의로의 전이, 중화주의에서 조선주의로의 전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 것<sup>17)</sup>처럼 석복 역시 18세기 큰 시사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듯 보인다.

### 3. 耽羅錄의 世界

樊巖 蔡濟恭은 젊은 시절부터 晩年까지 石北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平生知友였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석복의 시재를 높이 사고 있다.

當世知名士 當世에도 이름난 선비 많지만  
無如申聖淵 申석복 따를 자가 정녕 없구나.

15) 신광수, 「關西樂府 竝序」, 『石北集』 권10, “東國無樂府”

16) 안대희,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覺』,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7) 안대희, 『18世紀 韓國 漢詩史 研究』, 소명출판, 1999,



詩不今人似 시는 지금 사람과 같지 않고  
交能古全道 사귄에는 옛 법도 온전히 하였네.<sup>18)</sup>

이 작품을 통해 樊巖이 石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石北의 시재 또한 탁월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石北은 이러한 그의 시재를 가지고 英祖 40년(1764) 金吾郎으로 제주에 들어가 45일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시를 지었는데 여정을 형상한 것까지 합쳐 「耽羅錄」이라 명명하였다. 모두 100여수에 이르는 「耽羅錄」에는 제주의 風俗과 풍토성을 그린 것이 많으나 異國의 정취 속에 그의 風流意識이 드러난 작품과 官僚意識 및 愛民意識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 1) 風流意識의 具顯

석북은 역시 큰 시인답게 제주에 도착하여 뱃머리에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특이한 그만의 행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던 제주를 다녀간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남겨진 작품들 속에서 당시 제주의 정취를 엿볼 수 있다.

水拆三分國 물은 셋으로 나뉜 나라를 갈라놓았고  
天排八字山 하늘은 팔자 모양의 산을 펼쳐 놓았네.  
驛驢盈野牧 준마는 들에 가득하고  
橘柚滿秋澆 귤 유자 가을 밭상에 가득하네.<sup>19)</sup>

<下略>

北軒 金春澤이 제주에서 유배중인 아버지 金眞龜를 찾아갔을 때 첫 느낌을 적은 작품이다. 유배중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내방한 착잡한 심정 속에서도 생애 처음 밟아 보는 제주도에 대한 느낌 속에 그 어디에도

18) 채제공, 『樊巖集』 권4, 「憶申聖淵」.

19) 김춘택, 『北軒集』 권1, 「囚海錄」, 「濟州」.

고립된 제주에 대한 얘기가 없다. 얼마간 아버지의 유배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음직 한데 그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남극의 이국적 풍취에 도취된 듯한 느낌으로 점철되어 있다.<sup>20)</sup>

그렇다면 직접 석복의 시를 통해 이러한 정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靑青天水有無間	푸른 바다 끝이 없는 듯
使者孤舟向百蠻	이내 몸 외로운 배 저어 남으로 향하네.
一片白雲南極外	남녘 끝에는 한 조각구름만이 떠 있는데
艚工道是漢擎山	사공이 한라산이라 말하네. <sup>21)</sup>

그야말로 지극한 서경적 시각을 가지고 제주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올라치면 아득한 제주 섬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 허리를 구름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미인이 치마를 무릎 위로 치켜 올린 듯 은은하게 느껴진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다 밖에서 바라다 보이는 신비한 제주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그리고 그는 「初度日值春分州妓綠壁問病餉橋以詩謝贈」, 「獻贈少妓碧桃月」, 「別時船上贈一絕」, 「贈綠壁弟子月蟾」, 「楸子前洋夕望漢擎山」 등에서처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 중 「贈綠壁弟子月蟾」을 보자.

蘇小家中學舞娘	소소의 집 안에서 춤을 배운 아가씨
隨孃送客到橫塘	그 연인이 임 보내려 횡당에 이르렀네.
津亭落日相思曲	진정에서 해가 질 때 상사별곡 부르나니
不待明朝已斷腸	이튿날 아침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애가 끊어지네. <sup>22)</sup>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蘇小의 집에서 춤을 배웠다는 것은 그만

20) 줄고, 「北軒 金春澤의 「因海錄」의 한 局面」, 『漢文學研究』 제17집, 계명한문학회, 2003.

21) 신광수, 『石北集』 권7, 「至半洋望漢擎山」.

22) 신광수, 『石北集』 권7, 「贈綠壁弟子月蟾」.

큼 춤을 잘 추는 여인임을 의미한다. 소소는 흔히 名妓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입을 보내려고 橫塘까지 따라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送別宴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送別宴에서 기녀들이 춤과 노래를 하고 있는 바다. 기녀 月蟾의 想思別曲이 너무나도 애절하여 이별의 시간인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벌써 애가 끊어진다고 읊었다. 도도한 풍류 속에서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2) 官僚意識의 透映

조선은 中央집권적 군주제다. 三綱五倫이 사회를 지탱케 하는 근본 윤리로 작용한 나라이다. 군주 된 사람은 신하와 백성들을 인솔하고 지도하며 통솔해야 한다. 이것이 君爲臣綱이다. '綱'이란 그물눈에 달린 밧줄을 말하는 것이다. 그물눈은 수백 수천 개나 되지만 밧줄 하나만 당기면 끌려오게 되어 있다. 군주는 수많은 백성과 신하를 거느린다. 오류 중에서 군주와 신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君臣有義다.<sup>23)</sup> 이것은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상하의 수직적 질서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조선조에는 '臣事君以忠'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不忠은 곧 滅族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 나라를 지탱케 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념으로 굳어져 벼슬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일을 君恩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耽羅錄」에서도 君恩이 자주 언급되었다.

山出三州拱天文  
帝座常時呼吸聞  
穆王八駿應渡海  
麻姑·鹿今留雲  
銀臺咫尺不可到

산이 세 고을 위를 솟구쳐 하늘의 꾸밈 끌어안고  
옥황상제 호흡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듯 하네  
목왕의 팔준마는 웅당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마고할미의 사슴 지금 구름 속에 머물러 있네.  
은대가 지척이건만 오를 수 없고

23) 이상은, 「儒學과 東洋文化」, 『범학도서』, 1975.

藥草樞秘何由分	약초는 깊이 감춰져 캐낼 수 없네
南極老人若堪摘	남극노인성을 딸 수 있다면
北歸吾將持贈君	돌아가서 임금님께 드리고 싶구나. <sup>24)</sup>

三神山의 하나인 한라산이므로 도교적 상상력이 풍부히 발휘되고 있으며, 그 속에 임금에 대한 지극한 충심을 담았다. 옥황상제의 숨소리가 언제나 들릴 것 같은 한라산이다. 주나라 목왕의 팔준마가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곧 石北 자신이 남해 바다를 건너 제주에 머물고 있음을 말한다. 자신을 목왕에 비유함으로써 신화적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므로 새 발톱 같은 손톱을 한 미모의 여인 마고의 사슴이 한라산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한라산을 仙郷으로 인식했음이다. 神仙들이 살고 있는 은대에 올라가 그들과 仙遊를 즐기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는 그 순간에도 임금의 萬壽無疆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장수의 심상을 지닌 남극노인성을 따다가 임금님께 바치고 싶다고 토로했다. 충심의 직접적 표출이다.

임금에 대한 忠心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음에도 浪漫的 抒情性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곧 도교적 상상력이 작품의 미적 예술성을 유지케 했다. 이러한 경향은 <漢擎山歌><sup>25)</sup>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君王不使我求仙/ 我欲爲君而採藥(군왕께서 나에게 선약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임금을 위해 선약을 캐러 한다.)'이라고 했다. 임금을 위해서 불로불사약을 캐어 바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의 표출이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직접적 충심의 표출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서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 욕망이 비현실적 세계 속에 구현됨으로써 문학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君恩은 자칫 집착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탕평책의 일환이라지만 지금의 벼슬살이는 그 자신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그는 모처럼의 벼슬살이가 풍우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였다.

24) 신광수, 『石北集』 권7, 「望漢擎山吳體」.

25) 신광수, 『石北集』 권7, 「漢擎山歌」.

## (가)

南溟守風客  
如被祝融噴  
高浪連千里  
孤舟繫兩旬  
敢忘王命急  
惟待聖朝仁  
殘燭難成睡  
相看每到晨

남쪽 바다 끝 바람을 엿보던 나그네  
마치 남해신의 노여움을 산듯하구나  
높은 물결 천리에 이어져  
외로운 배 양旬을 매어있네  
감히 왕명의 급함을 잊으리오.  
다만 성조의 어지심을 믿을 밖에  
잔촉 아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  
매번 서로 바라보며 새벽에 이르네.<sup>26)</sup>

## (나)

忽聞風信放船催  
風到前洋又逆來  
風伯不知王事急  
載人三泊望洋臺

홀연 바람소리 잠잠하여 배를 띄웠더니  
바람이 앞바다에 이르자 거슬러 다가오네.  
풍백은 왕명의 위급함 모르는 듯  
사람을 희롱하여 세 번이나 망양대에 머물게 하는  
구나.<sup>27)</sup>

(가), (나)시 모두 왕명의 위급함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거세지기만 하는 풍우 앞에서 자신의 노심초사한 심정을 드러내려 하였다. 일면 풍백에게 애걸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작가가 처한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英·正朝에 과거에 응시한 자가 수만이 되었고, 여러 해 거듭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현직에 봉직하고 있는 관리수보다 몇 배나 되었다. 응시에서 낙방된 수는 더욱 많았다. 당쟁은 필연적이었다. 살기 위한 생활 방편의 하나가 된 당쟁은 정권투쟁으로 번졌고, 영조 조에는 마침내 노론천하가 됐다. 노론천하에서 남인은 그 설 자리가 별로 없었다. 石北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한정된 벼슬자리에 비해 양반들의 수요가 늘어만 갔으니, 자

26) 신광수, 『石北集』 권7, 「遭颶 回泊滯病三旬 憫得一律」.

27) 신광수, 『石北集』 권7, 「二月十九日 第三發回泊 悶吟」.

리는 적고 경쟁자는 많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중국의 지지를 받는 왕권 내지 정권에 대하여 무력에 의한 兵亂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반대파를 失脚시키도록 왕에게 강요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대립되는 정파의 심판자로서 왕권은 강대해졌으며, 국왕을 둘러싼 음모와 간계는 끊임 없이 벌어졌던 것이다. 또한 朱子學이 지나치게 義理를 내세워 君子, 小人을 가려 융합의 기운이 적었으며, 三司의 言論에 대한 自由는 黨爭을 위한 수단으로 濫用되거나 惡用되어 당쟁을 격화시켰던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그의 늦은 벼슬살이는 가족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절실한 부분이었는데 그에게 군은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 3) 愛民意識의 發露

石北은 하층민이나 위항인과도 교류하였다. 龔啞丐者나 占術家 劉雲泰 및 劍舞妓 秋江月, 그리고 月溪樵客 丁峰 등과 관련된 시가 있으며, 毫生館 崔北에 대한 시도 있다. 특히 書吏 朴壽禧는 제주도에서 留館하며 지낼 때 더불어 많은 시를 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비에게 보낸 편지나 노비와 관련된 시 등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石北詩에서 하층민에 대한 연민의식은 이 같은 인간애의 발로라고 하겠다. 布衣로 關西에서 노닐 적에 關西伯 鄭翬良은 邸舍에서 한번 사귀기를 원했으나 石北은 끝내 사양했다. 여기서 벼슬이 높다고 하여 자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英祖가 집과 노비를 내렸으나 모두 받지 않은 謙德兼介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분명한 성품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냥 묵과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석북은 몰락한 기호남인 출신이다. 그가 50이 넘는 나이에 탕평책에 의해 관료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 자신 처절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양반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 가야 한다.”는 성호 이익의 말에서 대변되

28) 김덕룡, 『人物韓國史』4, 박영사, 1965.

뚝 간간히 벼슬살이가 이어졌고, 검약한 생활 속에 누대로 물려오는 적은 토지지만 체면유지정도는 할 수 있었던 영남남인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지를 가지고 척박한 환경 속에 생활을 이어야만 했던 기호남인들의 처지는 이대이상 벼슬이 끊어지면 생계조차 망막해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주변적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백성들의 생활을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淸絶蘇安島  
船頭望白沙  
入林無海色  
經麓始人家  
商舶春通米  
村盤夕有鰕  
夜聞官吏語  
官稅到天涯

말썽한 외딴 소안도  
벳머리에서 바라보니 모래사장 펼쳐졌네.  
숲으로 들어서니 바다색 전혀 없고  
기슭을 지나니 비로소 인가들이 보이네.  
상선들이 봄이 되어 미곡을 실어 나르건만  
시골 저녁 밥상에는 달랑 새우뿐이네  
밤이 되어 관리들의 말을 들으니  
관세가 천정부지로 똬다하네<sup>29)</sup>

벳머리에서 아무생각 없이 바라보면 그야말로 얼마간 모래사장이 펼쳐진 여느 곳과 다를 것 없는 고즈넉한 어촌의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民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상선들이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달랑 새우 몇 마리뿐인 조촐한 저녁 밥상에서 현실적 아픔이 그대로 전해진다. 더하여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치솟는 세금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조차 없는 가난한 농촌의 무기력함이 작가에 의해 너무도 짙게 형상화 되었다.

조선왕조 말기의 사회는 세도정치로 인한 제반폐해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국가재정은 위축일로에 있었고, 삼정문란으로 인한 세정의 불공정과 지방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농가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면에 민중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경제의식도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조화현상은 철종 때로 접어들면서 더욱 더해 갔

29) 신광수, 『石北集』 권7, 「宿蘇安島」.

고 그 가운데서도 三南地方의 그것이 가장 심했다. 전라도관찰사 鄭獻教가 그의 狀啓에서 “濟州民亂의 직접요인은 오로지 長吏의 貪虐 때문이었다”<sup>30)</sup>고 하였던 것이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제주민란에 대한 예기는 석복과의 시대적 거리감이 있지만 역사라는 관점아래에서 보면 예고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시 두 편을 보자.

(가)

石田頻歲海民饑  
滿目淒涼物色悲  
從古魚鹽無市國  
如今風雨絕船時  
長毛鑲卒偷廚肉  
黃面蕃姑剝樹皮  
我亦王人來此地  
每當朝夕自停匙

자갈밭 잦은 흉년 남도 백성 주리고  
눈 가득 처량한 물색 슬프기도 하구나  
예로부터 어염으로 장이서지 않는 나라  
지금처럼 풍우가 뱃길을 끊을 때면  
장모진 역족들이 부엌고기 훔쳐내고  
황달 색 변방아낙 나무껍질 벗기네.  
나 또한 신하로 이곳에 와서  
매번 조식을 대할 때면 절로 손갈 멈춘다네.<sup>31)</sup>

(나)

三縣三周供  
荒年久客難  
日邊頻有詔  
海外不無官  
草食民啼路  
鵝衣吏繞盤  
青衫貧使者  
何術救饑寒

삼현에서 세 번 돌아가며 식사를 대니  
흉년에 오래묵기 난처하구나.  
변방에도 자주 조서 내리고  
바다 밖 관리 없는 것 아니네  
풀을 먹고 백성들이 우는 길에  
메추라기 옷 입은 관리들 밥상에 둘러앉았네.  
청삼 걸친 가난한 사신이  
어떻게 기한을 구휼한다 할 수 있으랴<sup>32)</sup>

30) 김진봉, 「哲宗祖의 濟州民亂에 대하여」, 『풀빛2』.

31) 신광수, 『石北集』 권7, 「憫荒」.

32) 신광수, 『石北集』 권7, 「又憫荒」.



石北은 문학적 능력과 지식 경륜 등을 펼쳐볼 기회를 늦도록 가져보지 못했으므로 그의 시는 自憐自哀의 서글픔이 주조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 대상에 대한 事實的이고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도 탁월한 시재를 발휘하고 있다.

당시 흉년을 만난 제주도 백성들의 참상은 「憫荒」에서 ‘長毛鑣卒偷廚肉 / 黃面蕃姑剝樹皮(장모진 역졸들이 부엌고기 훔쳐내고/ 황달 색 변방 아낙 나무껍질 벗기네)’로 나타났고, 「又憫荒」에서는 ‘草食民啼路/ 鶉衣吏繞盤(풀을 먹고 백성들이 우는 길에 / 메추라기 옷 입은 관리들 밥상에 둘러앉았네)’으로 표출되고 있다. 세 고을에서 세 번 돌림으로 식사를 대왔을 정도로 관가도 어려운데, 흉년에 오래 잇기가 어려운 것이 관리의 심정이다. 관리가 있음을 굳이 말한 것은 관리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그러나 풀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도가 없다. 백성들의 비참한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 饑寒을 구제할 수 없는 관리의 괴로움을 통해 애민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탐관오리의 횡포와 포악상이 잘 드러난 「金馬別歌」<sup>33)</sup>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면 그의 애민의식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탐관은 구홀물자 인색하여서/ 송곳으로 부황 든 백성 찌르더니만/ 암관은 아전들 손아귀에 놀아나/ 고을엔 기와집이 많기도 했네. (貪官愛賑財/ 持錐刺浮黃 / 暗官入吏袖/ 邑中多瓦屋)

어리석은 官吏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아전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기 때문에 민정을 밝게 살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기가 똑바로 확립될 수도 없다. 아전들은 그 틈을 이용해 苛斂誅求를 일삼아 私腹을 채우고 있다.

33) 신광수, 『石北集』 권4, 「金馬別歌」.

####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石北은 평생을 다채로운 문학적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살다가 인생 말기에 蕩平策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위기 속에 벼슬살이를 하게 된다. 『耽羅錄』 역시 그가 金吾郎으로 제주에 갔다가 風雨로 뱃길이 45일 동안 막혀 제주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창작된 역작이다. 따라서 『耽羅錄』 속에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과거 속에서 체득된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고통 받고 있는 제주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하였다.

둘째, 그의 風流意識은 사실적인 자연묘사가 들어있고, 이별의 정한이 잘 나타나 있다.

셋째, 그의 官僚意識에는 전통적 君臣有義의 정신 속에 君恩이 잘 묘사되었으며, 동시에 조선후기 치열한 당쟁 속에 전전공공하는 모습이 들어 있다.

넷째, 그의 시 속에서 주요한 국면은 愛民意識이다. 이것은 그가 몰락한 남인 출신으로 만년 들어 출사하기까지 궁핍한 삶을 통해 백성들의 현실을 몸소 체득하고, 관리가 된 이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耽羅錄』 속의 작품고찰에 천착한 나머지 전체 『石北集』과의 연관점을 소홀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주에 대하여 비슷한 기록들을 남긴 다른 문인들과의 비교에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과제로 남겨둔다.